

혼마루 궁전: 역사와 심미적 취향

천황과 황족의 상징인 혼마루 궁전은 한때 도쿠가와 쇼군의 성과 교토의 저택이었던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니노마루 궁전과 함께 혼마루 궁전을 둘러보면 황실과 무인 계급 사이의 대조적인 심미적 취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창기의 혼마루 궁전

니조성(二条城)은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1603년 축성했습니다. 당시 실질적 통치자는 쇼군이었지만, 천황에게는 여전히 공식적인 국가 원수 지위가 있었습니다. 1626년 고미즈노오 천황(1596~1680)은 황족의 자격으로 니조성에 행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니조성의 부지가 확장되어 첫 번째 혼마루 궁전이 축성되었습니다.

현재의 혼마루 궁전

고미즈노오 천황의 내방을 위해 건설된 궁전은 1788년 교토 대화재(덴메이 대화재) 당시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혼마루 궁전 건물이 부지 내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화재 후 세워진 임시 궁궐이 수십 년 동안 쓰였습니다. 네 채의 건물은 원래 황족인 가쓰라노미야 가문의 거처였던 가쓰라노미야 가문 저택의 일부였습니다. 이 건물들은 1894년 메이지 천황(1852~1912)의 명으로 현재 자리로 이축되었습니다. 1867년 도쿠가와 쇼군이 물러나면서 정권은 천황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니조성의 관리권은 황실로 이관되었으며, 1884년에는 니조 별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혼마루 궁전과 니노마루 궁전의 심미적 대조

니조성(二条城)에 있는 두 궁의 디자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혼마루 궁전의 지붕은 조금 더 둥근 모양이며, 처마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고 장식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지만 지나친 화려함은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노마루 궁전은 정교한 조각, 방대한 양의 금박, 가파른 지붕의 선으로 호화로움과 권위를 한껏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궁전 모두 장지문에 그림 장식이 있으나, 모티브와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귀족풍인 혼마루 궁전의 한 그림에는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는 학이 호숫가 소나무의 늘어진 가지 아래를 노니는 새끼들을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무인 계급의 취향이 반영된 니노마루 궁전에서는 힘과 권위의 상징인 매가 드높고 튼튼한 소나무 가지에 앉아 주위 풍경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혼마루 궁전의 역사

메이지 천황은 1895년 니조 별궁을 공식 방문 시 오늘날의 혼마루 궁전을 사용한 최초의 황족이었습니다. 궁전에 머무는 동안 천황은 주요 공간들의 명칭을 정하고, 2층 황실의 거실인 어좌소(御座所)에 한 폭의 서예 작품을 걸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행복을 나눈다는 뜻을 담은 ‘문壽(테이쥬)’라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황태자 요시히토(훗날의 다이쇼 천황, 1879~1926)와 그의 아들인 황태자 히로히토(훗날의 쇼와 천황, 1901~1989)가 바로 이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요시히토는 1915년에 즉위했으며, 그의 즉위연은 니조 별궁에서 열렸습니다.

궁전의 일부는 시대에 따라 개조되었습니다. 전등이 설치되고 샹들리에가 달렸으며, 다다미 일부와 마룻바닥 위에는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오래된 조명기구 다수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